

진시몬, 강레오 멜론 하우스 복구 구슬땀 “내년엔 꼭 풍작 되길”

곡성군 홍보대사들의 우정... 집중 호우로 침수된 하우스 시설물 정비

곡성군 홍보대사인 가수 진시몬씨가 지난 28일 곡성에서 수해 복구작업을 벌였다. 곡성 홍보대사인 강레오 셰프를 돕기 위해서다.

30일 곡성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28일 곡성군 대평리 강레오 셰프의 멜론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땀을 흘렸다. 강씨의 비닐하우스는 지난 7-8일 폭우로 침수됐다.

강 셰프는 지난해부터 곡성에서 멜론 농사를 짓게 된 것을 인연으로 올해 6월 곡성군 홍보대사에 임명됐다.

그는 가을 수확을 목표로 곡성군 대평리 비닐하우스 2동에서 멜론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하우스 2동이 모두

침수됐다.

진씨는 강 셰프의 멜론 비닐하우스가 수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곡성을 찾았다. 진씨는 이른 아침부터 침수됐던 농작물을 치우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구슬땀을 흘렸다.

진씨는 “올해 멜론 농사는 어렵게 됐지만, 다시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풍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 셰프를 위로했다.

강 셰프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고, 저보다 큰 피해를 본 농민들이 걱정”이라며 “내년에는 좋은 품질의 멜론을 생산해 곡성 멜론을 널리 알려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곡성군 홍보대사 가수 진시몬(왼쪽)씨와 강레오 셰프가 멜론 재배 비닐하우스를 복구하고 있다. 강 셰프의 곡성 비닐하우스는 폭우로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곡성군 홍보대사 가수 진시몬(왼쪽)씨와 강레오 셰프가 멜론 재배 비닐하우스를 복구하고 있다. 강 셰프의 곡성 비닐하우스는 폭우로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청 김재곤 주무관 토목시공기술사 1차 합격

“뒤늦게 공직에 뛰어들었지만,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해 도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전남도 도로교통과에 근무하는 김재곤(48) 주무관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시행 제122회 토목시공기술사 1차 시험에 합격했다. 11월에 2차 실기테스트를 통과하면 최종 합격하게 된다. 기술사는 건축, 토목, 지적, 임업 등 각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자격증이다.

응시 자격자체도 까다롭다. 대학졸업 후 기사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일정기간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시험문제와 평가가 암기보다는 다양한 응용능력과 해결방안을 테스트하기 때문이다.

김 주무관은 진도 출신으로 조대부교과와 아주대를 졸업하고 시공회사에 근무하다가, 1995년에 교통사고를 당한 부친의 병환이 깊어지자 가족과 함께 귀향해 지난 2003년 늦깎이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술사 준비를 하면서 얻은 전문지식은 신규 직원들을 위한 교육에 활용하는 등 도정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현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1000만원 수해성금 기탁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철신)가 최근 수재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남도지회에 긴급수해복구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1만원 미만 지폐나 동전을 모아 마련한 끝잔모금에 공사가 동일한 금액을 함께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마련했다.

김철신 사장은 “역대 최장기간 장마 후 이어진 폭

염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까지 이어지면서 수해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적거나 마 도움과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수해 현장이 신속히 복구돼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탁 소감과 바람을 전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이번 기부에 앞서 수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총 8일간 전남 곡성군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윤현식 기자 chadol@

한우협회 전남도지회, 곡성·구례 수해지역에 위문품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가 곡성, 구례 등 수해지역 이재민에게 1600만원 상당의 이불 40채(800만원), 한우 한 마리(600만원), 가족약품(200만원)을 최근 전달했다. 이번 위문품은 전남한우협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호우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김삼연씨는 “이번 폭우로 한우 75마리가 폐사해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가

의 조기 경영 회복과 위로 차원에서 한우 암소 한 마리를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구상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장은 “이번 위문품 전달로 이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는 33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우산업 발전과 농가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윤현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사

- ◆한국전력
- ◇본부장
- ▲관리본부장 이정복 ▲기술혁신본부장 김숙철
- ◇특수사업소장
- ▲전략연구원장 김태균

TV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KBS 시청자 주간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KBS 시청자 주간 아침마당 시청자, KBS를 말한다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KBS 시청자 주간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35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KBS 시청자 주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개는 훌륭하다(재)	45 결혼계약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바다 건너 사랑(재)	0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0 동해수호대 50 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정재영의 이슈IN(재)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스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10기에 산다(재)	00 뉴스브리핑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미니다Q(재)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다큐멘터리 3일(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3	10 한국인의 밥상(재)	00 5 MBC 뉴스 20 포비덴리	00 5 MBC 뉴스 20 포비덴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30 KBS 시청자 주간 2TV 생생정보	20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KBS 시청자 주간 앙코르 인간극장(재)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6	00 KBS 시청자 주간 6시 내고향 KBS 로컬 大 연결	30 퀴즈 위의 아이돌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KBS 시청자 주간 우리말 겨우기	30 그놈이 그놈이다	30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어	00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8	30 기막힌 유산	40 개는 훌륭하다	40 백팩터 확장판	00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재)	05 여자들의 은밀한 피터-여은파 25 지도의 뒷면	30 나이트 라인
10	00 KBS 시청자 주간 가요무대 50 더 라이브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2	10 KBS 시청자 주간 국제공동제작 아시안 피치 마지막 링 레이다-말레이시아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히어로 싸클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퓌퓌! 보니 하니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7:15 출동! 슈퍼윙스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30 클래스 e	19:45 돈이 되는 토크쇼 - 머니톡
07:45 꼬마하어로 슈퍼잭	13:00 EBS 다큐프라임	20:35 경이로운 지구
08:00 당동당 유치원	13:55 다문화 고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뽀로로 동화나라	14:45 레이디버그	<한시로도, 천하제일경-두 강 이야기>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45 머털도사	21:30 한국기행
09:00 픽시	16:15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숲속에 삽니다-심심산골 가을 맛은>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30 당동당 유치원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명탐정 피트	16:50 해오와 해오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남만에 대하여>
10:30 한국기행(재)	17:20 아웅명명 귀여워2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로빈 후드	23:50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31일(음 7월 13일 丙午) ☎ 010-9790-8237

<p>36년생 원력을 알고 있던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 48년생 뜻밖의 만남이 있으나 짧은 인연일 뿐이다. 60년생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방해하지 않는다. 72년생 조그만 허점도 노출해서는 안 된다. 84년생 길이가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타개할 수 있다. 96년생 재수불공을 올린다면 마지막은 분명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64</p>	<p>42년생 꼭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한다. 54년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뒷말이 없다. 66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생산적이거나. 78년생 과욕은 곧 어리석음을 낳게 될 것이다. 90년생 성실속이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02년생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06, 99</p>
<p>37년생 탄력이 붙으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49년생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61년생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적절한 해답을 얻는다. 73년생 직접 접해 봐야만 얻는 바가 있느니라. 85년생 반가운 이를 만나서 기쁨을 나누리라. 97년생 생소하기는 하나 재미는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76</p>	<p>31년생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43년생 맹목적인 집착은 소모적인 국면에 이르게 한다. 55년생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응대하는 것이 낫다. 67년생 너무나 비슷해서 진위를 혼동하기 쉬울 것이다. 79년생 믿고 의지해 왔던 바를 갑자기 잃을 수도 있다. 91년생 목적이었던 바와 조우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0, 68</p>
<p>38년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장이 많을 수도 있다. 50년생 잘 준수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62년생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74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청산해야 한다. 86년생 내일을 위해 오늘의 불평은 감수하자. 98년생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의 요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8, 54</p>	<p>32년생 역경은 경함으로써 극복 될 수 있을 것이거나. 44년생 정성으로써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성사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56년생 악순환의 연결 고리는 과감하게 끊자. 68년생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80년생 시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2년생 탄력을 받으면서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29, 69</p>
<p>39년생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51년생 의미가 없다. 63년생 변수는 없으니 원작대로 소신을 갖고 임하면 그만이다. 75년생 도를 넘는 단역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87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이 겹치리라. 99년생 생사제히 들여다보면 미흡한 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1, 67</p>	<p>33년생 먹구름 사이를 헤집고 희망의 붉은 해가 치솟는다. 45년생 일관되게 진행한다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다. 57년생 인식한 예감과 실제 사실을 엄격히 구분하라. 69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라. 81년생 행동해야 한다. 93년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19, 79</p>
<p>40년생 반드시 실용성을 전제해야 하느니라. 52년생 보기보다는 의외로 복잡하고 난해한 판도를 이루고 있다. 64년생 커다란 재앙의 불씨가 보인다. 76년생 약하게 대응한다면 믿게 될 수도 있다. 88년생 강력한 세력에 휩쓸려 가는 성국이다. 00년생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78</p>	<p>34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한 것이 아쉽다. 46년생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는 기쁨이 있다. 58년생 과거에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70년생 양자를 비교해보면 즉시 알 수 있으리라. 82년생 지나치다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94년생 대다수의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집합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0, 98</p>
<p>41년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53년생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65년생 추진해 보았자 주목할 정도의 실적은 없을 것이니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하라. 77년생 임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89년생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01년생 지나치다면 부딪감을 주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3, 90</p>	<p>35년생 갈급해 왔던 것이 곧 해결 되겠다. 47년생 뒤늦게 허점을 보게 되리라. 59년생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지내야 편하다. 71년생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할 때다. 83년생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청산하는 것이 옳다. 95년생 가지치기를 잘 해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0, 70</p>